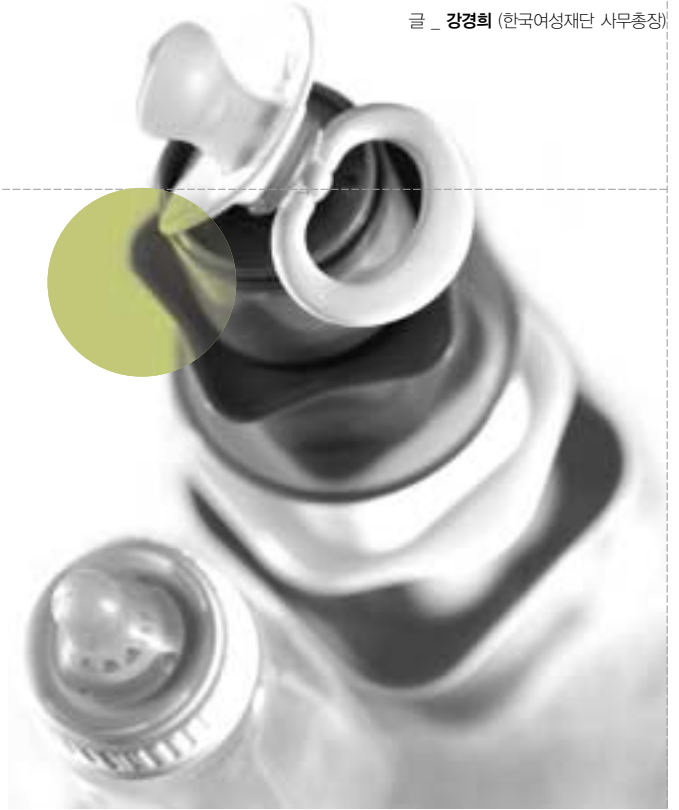


글 _ 강경희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벤처기업의 자랑스러운 일터 만들기



지난 4월 7일, 한국여성재단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래포럼'에서, "일본의 가족 친화적 기업제도"라는 주제로 첫 포럼을 개최하였다.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보다 조금 앞서 겪으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해온 일본의 소자화(少子化) 대응 정책과 기업들의 경험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일본은 이미 1999년부터 매년 10월에 가족 친화적 기업들을 표창해 왔는데, 휴직제도 및 휴가제도, 직장보육소운영, 탄력적인 근무제나 출퇴근시간 조정 등으로 직장 가정의 양립에 유연하게 대처한 기업들이 대상이 되었다.

일본기업의 소자화대응전략으로 인한 자긍심 고취

미래포럼에서 일본의 몇 기업들의 소자화대응전략이 소개되었다. 주식회사 시세이도에서는 종업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플렉스타임제도와, 육아휴업제도,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시간제도등을 도입하였다. 소니(Sony)의 경우, 육아를 위한 완전재택근무제를 허용했고, 후지쓰에서는 육아휴가기간을 1년 반으로 연장시켰다.

2005년 1월21일 일본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지 제5호를 통하여 '차세대인정마크제'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기업이 매우 적극적으로 고용인들의 가정친화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애사심 함양

2001년 겨울, 평소에도 직장인 월급나눔에 참여하고 있던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뜻있는 송년모임을 가지고 싶다면 어디에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전 직원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시간과 에너지를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쓰겠다고 했다. 그 벤처기업은 직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은 양로원으로 가서 겨우내 사용할 장작을 종일 패고 왔고, 한 그룹은 SOS마을에 가서 산타잔치를 열어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늦은 저녁, 땀에 범벅이 된 그들은 가볍게 한잔하자며 호프집으로 향했다. 헤어지기 섭섭해서라기보다도, 하루 동안의 경험으로 마음에 꼭 차있는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였다고 후에 전해 들었다.

그 날 특별히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 모두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을 것이다. 송년모임에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종일 흘린 땀내음을 풍기며 환한 얼굴로 집으로 들어서는 가장으로부터 하루의 경험을 전해들은 가족들 또한 남편의, 혹은 아내의, 엄마나 아빠의 일터가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일본의 소자화대응정책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분분하다. 자세한 논란을 보기에 앞서,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책을 고민하고 수행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에 비취보았을 때, 흥청거리는 연말을 건강한 벤처식의 송년잔치로 가져간 우리 벤처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선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의제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